

반: _____ 어린이 이름: _____ (남, 여) 제출자 : _____ (부, 모)

「자녀양육의 영적 역동성을 회복하라」 Study Guide

이 책은 <부모학교>라는 책을 쓰신 게리 토마스의 저작으로 1년 52주 동안 매주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 실천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함께 묵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책 속의 52개의 소주제와 말씀을 묵상하며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페이지 표시는 2015년 인쇄본 기준)

1.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게임을 즐기고 서로 붙들어 주고 격려해 주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지 생각해 보라. 우리가 무심코 죄에 빠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께 반항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은 아주 단순한 개념이지만 우리 삶에 혁명적인 결과를 낳는 말이다. 이것은 17세기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의 솔직한 메시지이기도 하다. (p.14)

2. 우리 중에 완전한 을 남길 부모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을 남길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말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덕성의 아름다움, 자아 부인의 고귀함과 행복, 의무가 가져다 주는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을 하고 받드는 마음을 전수해야 한다.” (p.27)

3.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생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다. 물론 자녀를 낳은 것이 결혼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지만 주된 목적인 것만은 분명하다. (p.34)

4. 사실 자녀양육은 의 계절이라는 말로 가장 잘 정의될 것 같다. 이 일은 아이들이 다 성장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p.48)

5. 우리 자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각 아이마다 를 설계해 두셨다. 우리가 자녀를 세워 주지 않고 오히려 비하하고 깎아내림으로써 그 미래를 꼬이게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우리에게 그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은 뻔하다. (p.65)

6. 자식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가 되는 것은 로서의 훈련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나의 평판이 자녀들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과 내가 부자지간 혹은 부녀지간임을 ‘인정하는 것’을 창피해하지 않기를 원한다. (p.73)

7. 하나님은 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분의 들로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순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뿐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 지나치게 활동적인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어떤 때는 잔인한 사람의 잔인한 면까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p.96) - 뒷장에 이어집니다 -

8. 기독교를 오직 금지된 행위들로만 규정하는 부정일반도의 신앙을 피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에게 나도 공감한다. 만일 우리가 뭔가를 강조하다가 오류를 범할진대 차라리 하나님의 긍정적인 영광과 선하심,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위로와 사랑과 자상하심을 전하다가 오류를 범하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나 그것을 강조한답시고 자녀들에게 []를 미워하도록 경고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의 태반은 우리가 []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중한 []를 입히게 되어 있다. 찰스 스펔전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으면 수많은 후회를 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p.101)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교만하게시리 망각하는 것은 자녀양육의 직업 재해라 할 수 있다. 자녀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p.109)

10. 배우자는 우리가 고르지만 자녀는 우리가 고르지 못한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오며 온갖 문제도 팔려 온다.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를 사랑하는 것이다. (p. 136)

11.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과 []로 양육하라” 엡 6:4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1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참을성 있게 양육하는 것을 왜 병치하고 있을까? 자녀들을 격노케 또는 낙심케 하지 말라고 왜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경고하는 것일까? (p. 140)

우리는 잘못되고 있는 일을 무시하지 않고 지속적인 주의 []과 []로 바빠야 한다. 아이들은 저절로 거룩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장 피곤하고 가장 바쁘고 다른 것에 몰두해 있을 때 일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속이 상황 대로 상하여 엉뚱한 []와 []로 반응하게 될 때까지 잠재적인 심각한 문제들을 어물쩍 방치하지 않기로 우리의 노력과 각오를 갑절로 다지자. (p. 142)

12.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는 것과 더불어 이렇듯 기꺼이 자기 자신을 먼저 [] 마 음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들 중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 행실이 없는 한 싸움과 불화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분쟁은 어느 한 아이의 잘못이 아니다. 아이들이 각각 자신의 잘못을 선뜻 인정하지 않는 한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부질 없는 일이다.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을 질 때에만 우리는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다. (P.182)

13. “네가 찾고 있는 것은 바로 나다. 처음부터 나는 여기 있었다. 너의 []을 나에게 두어라.”

이 거룩한 []을 계기로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대개는 대용품의 세계로 돌진하게 된다. 영혼의 짝이라는 사고 노선으로 되돌아가 외도를 궁리할 수 있다. 아니면 권력, 위신, 명성, 직업적인 성취, 정치적인 대의 등 인간관계가 아닌 것에 자신의 희망을 둘 수 있다. (p. 242)

14. 어떤 []이든 당신의 []을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과 대비시켜 주라. 우리의 가장 큰 상처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 (p.249)

* 자녀교육학교에 참석하시고 성실하게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